

2022. 8월 1주 언론보도 스크랩

[소방정책] '골든타임 사수' 소중한 생명 구한 용감한 시민과 소방대원들

江原日報

'골든타임 사수' 소중한 생명구한 용감한 시민과 소방대원들

평창 손승완씨·진부119 대원들
심정지환자에 심폐소생술 시행
신속한 신고·정확한 안내 빛나

심정지 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살려낸 평창군민과 소방대원들이 화제다.

기지를 발휘한 주인공은 평창의 한 제조사 직원 손승완(41)씨와 진부119 안전센터 소방대원들.

지난달 27일 오전 7시50분께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의 한 작업장에서 화물트럭 기사 A(55)씨가 트럭에 오르다 추락, 심정지 상태가 됐다. 이를 발견한 손씨는 즉각 119에 신고한 뒤



◇심정지 환자를 신속 정확한 판단으로 살려낸 진부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 왼쪽부터 이희동(35) 소방사, 한기빈(55) 소방위, 허현규(38) 소방장.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작, 위기에 처한 A씨를 소생시키는데 일조했다.

손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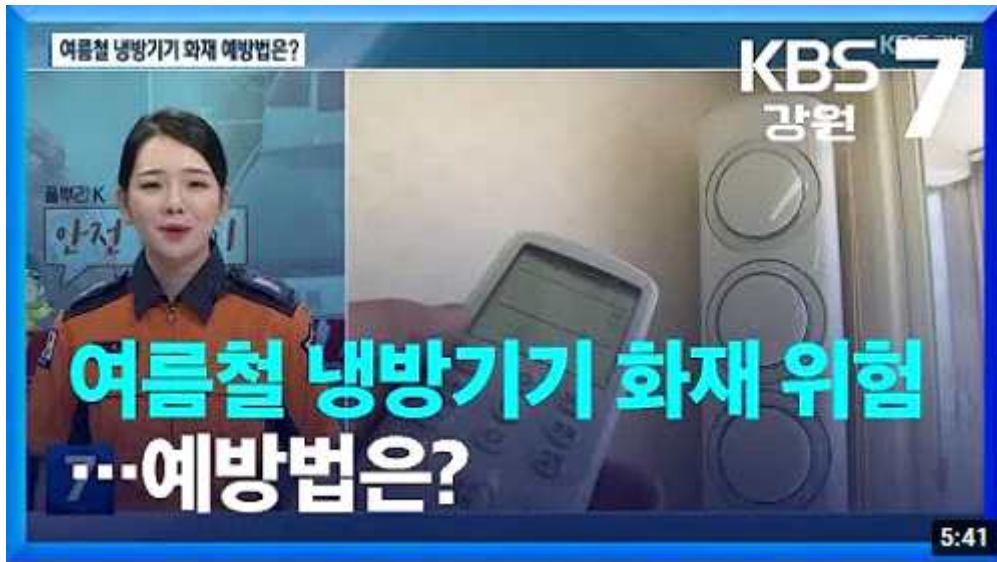
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 역시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에 주력, 다행히 A씨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의식을 회복했다. 신고자와

소방대원이 호흡을 맞춰 환자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한 것이다.

손씨는 "그동안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온 대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며 "환자가 의식을 회복해서 정말 다행"이라며 기뻐했다.

이날 현장출동을 맡은 진부119안전센터 허현규(38) 소방장은 "소방대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평창군민은 물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겸기자 lean@

[소방정책] [119안전브리핑] 뜨거운여름..냉방기기 화재를 주의하세요



무더위가 이어지며 냉방기기 화재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냉방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전지킴이 119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소방정책] 강원소방, BMW서 기부한 차량용 냉·온장고 120대 설치

 연합뉴스

[강원소식] 강원소방, BMW에서 기부한 차량용 냉·온장고 120대 설치



강원소방, 차량용 냉·온장고 120대 설치

(춘천=연합뉴스) 강원도소방본부는 BMW그룹코리아에서 기부한 차량용 냉·온장고 120대를 도내 소방서 20곳에 나눠 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강원본부는 화재진압 차량과 구급차 등에서 대원들이 계절에 맞는 음료를 마실 수 있게 하고 의약품을 보관하는 데 냉·온장고를 사용할 예정이다.

윤상기 소방본부장은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힘써준 BMW그룹코리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런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소방정책] 강원소방, BMW서 기부한 차량용 냉·온장고 120대 설치

매일경제



강원도소방본부는 BMW그룹코리아에서 기부한 차량용 냉·온장고 120대를 도내 소방서 20곳에 나눠 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강원본부는 화재진압 차량과 구급차 등에서 대원들이 계절에 맞는 음료를 마실 수 있게 하고 의약품을 보관하는 데 냉·온장고를 사용할 예정이다.

윤상기 소방본부장은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힘써준 BMW그룹코리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런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08월 07일
(지역)

BMW그룹코리아 강원소방에 냉온장고 120대 기부

구분호



▲ BMW그룹코리아는 최근 냉장용 의약품과 폭염 대비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차량용 냉·온장고 120대를 강원도소방본부에 기부했다.

bono@kado.net

신아일보

강원소방, 평창강 실종자 수난탐지견이 발견해 수습

김정호 기자 | 승인 2022.08.07 10:00 | 댓글 0

4일 평창강서 다슬기 줍다 실종, 탐지견 투입 2시간만에 발견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 4일 오후 1시40분쯤 평창강에서 다슬기 채취하다 물에 빠져 실종된 60대 남성을 다음날인 5일 13시 39분경 발견해 수습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강원소방본부)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 4일 오후 1시40분쯤 평창강에서 다슬기 채취하다 물에 빠져 실종된 60대 남성을 다음날인 5일 13시39분경 발견해 수습했다고 7일 밝혔다.

실종자 수색에는 인원 81명, 장비 29대가 투입됐으며 특히, 구조견 양성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교육대 소속 수난탐지견 파도(수컷, 6살)가 큰 역할을 했다. 13시 7분경 탐지견 파도는 보트 위에서 강을 탐색하던 중 일정 지점에서 크게 짖으며 반응을 보였고 이곳을 구조대원들이 수중 탐색해 30여분 만에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다.

수난사고 실종자 수색작전은 수색의 범위가 넓고 스쿠버 자격을 갖춘 전문 구조대원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원 인력도 한정돼 있어 큰 어려움이 있다.

수난탐지견은 발달한 후각능력을 통해 물 속의 사람의 체취를 탐지해 실종자 위치를 찾아내는 특수탐지견으로 현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1두를 양성해 실효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5명의 실종자를 찾아냈다.

사람과 비교해 최소 1만배 이상의 후각 능력과 50배 이상의 청각능력을 갖추고 있어 어떤 침단장비보다도 기후나 환경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초동수색·탐색에 역할이 크다.

최영수 평창소방서장은 “수난사고 실종자 수색시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수난탐지견의 활약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에 실종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며 “남은 여름기간동안 수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수난구조능력을 더욱 배양하겠다”고 말했다.